

1/6(목) 창세기 17-20장 유력한 대안들

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람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(16:16 참고).

사래의 출산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 상태입니다.

아브람은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는 <이스마엘>을 상속자로 생각합니다.

그런데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람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<이삭>을 약속하십니다.

아이가 없던 아브람에게 **조카 <롯>**은 유력한 대안이었습니다.

친족 간이었지만 둘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.

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무리 간에 다툼 정도가 되었습니다(13:1,7).

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아이러니하게도 결별의 사유가 되어버립니다(13:6).

분가를 앞둔 롯은 죄의 패턴을 답습합니다(13:10, saw-chose for himself).

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였던 롯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.

<여호와와 동산>처럼 보이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던 도시였습니다(18:32).

롯은 그곳에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(14:12), 늘 나그네요, 객인 삶을 삽니다(19:9).

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, 롯은 불미스런 사건 가운데 퇴장합니다(19:36-37).

아브람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다음 대안으로 생각합니다.

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<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>

아브람과 사래는 창의적인 방식(!)으로 이 약속을 해석했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(16:16).

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은 대안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난 <상속자> 자체였습니다(17:18).

그러자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을 명시하십니다.

이제는 아이의 어머니, 아이의 이름, 출생 시기까지 못 박으십니다(17:19,21, 18:10).

오직 <이삭>과만 언약을 세우겠다고 선포하십니다.

아브라함이 대안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약속을 더욱 구체화 하십니다.

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내 하나님 앞에서 <웃어버립니다>(17:17,18:12).

말씀을 통독하며 묵상하길 원합니다.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, 대안을 찾고 있는가?

❶ 하나님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, 대안을 응답으로 믿었던 경험이 있습니까?

❷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약속에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창세기 17-20장 (18:26)